

민간 주택시장에 '고분양가 심사' 추진

제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고분양가 심사 의뢰
 신규 공급 아파트가격 일정 기준 웃돌면 보증 거절
 학군 선호지역 중심 100세대 이상 공급 대상 적용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 가격이 역대 최고인 9억5000만원(전용 84㎡ 기준) 수준까지 치솟자 제주도가 도내 민간 주택시장에서 처음으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4일 "제주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고분양가 심사를 요청하면 HUG가 이를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최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고분양가 심사는 주택 공급 예정 사업자가 HUG에 분양 보증(건설사 부도에 대비해 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제도)을 신청하면, HUG가 분양 가격이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HUG는 분양가를 심사할 때 주변 시세를 고려하는데, 신규 공급할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이 기준을 뛰어넘어 인근 단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규 공급하려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 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1년이 넘었을 때는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된다.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를 토대로 책정해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30세대 이상 주택을 선분양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드시 HUG의 분양 보증을 받아야 해 고분양가 심사를 피할 수 없다.

단 고분양가 심사는 원칙적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30세대 이상 주택을 선분양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도 HUG가 지정하는데 분양가·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주택 시장이 과열된 곳이 지정 대상이다. 전국적

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아니지만 HUG 측에 이 예외규정을 활용해 분양가 심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HUG도 우리 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도내에 분양되는 주택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주도가 HUG에 심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형과 신제주 등 선호하는 학군이 몰려 분양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서 100세대 이상 공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방안 찾는다 도, 성과분석·개선 방안 발굴 용역 진행키로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667건에 4531억원의 투자 실적을 보이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7년에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감소 폭이 급격하게 커졌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활발히 이뤄지게 해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세수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부르기도 했지만, 부동산 과열과 무분별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의 문제도 낳았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투자 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대책과 변화하는 투자 정책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기초수급·차상위계층 1인당 10만원

도, 4만여 명에 40억여원 지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달 1일 이후 지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지급 시점에 사망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가구를 대표하는 1명의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기타 월 급여 지급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4만720명(추정)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0억720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오는 31일 이전까지



왕양폭포서 더위 식히는 피서객들. 무더위가 이어진 4월 서귀포시 돈내코 원양폭포를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얼음처럼 차가운 폭포수에 더위를 식히며 제충전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정부에 국비 416억 지원 요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강정정수장 정비 등 용도

제주도가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강정 정수장 정비 등 제주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국비 400여억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4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전남도청에서 열린 호남·제주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으로

416억원 규모다.

구 부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주시·서귀포시가 기초지자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 기초본 배분 시 제주가 소외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균특회계 제주계정 감소 폭이 큼에 따라 기재부의 제도개선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2차관은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와 강정정수장 정비사업의 경우 제주의 경제·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흩어진 관광 빅데이터 한데 모아 개방

앞으로 제주관광공사는 한국투어패스(주), (주)플로라와 함께 곳곳에 흩어진 제주 관광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민간에 개방하는 '제주 관광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민간 기업은 이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827
 4월 17시 기준

이룸갤러리

'이루다 in Jeju'

청년작가 그룹 초대기획전

김성진

박지우

김연화

김영진

김효정

황정희

전시실A

> 전시일자 : 8월 3일 (화) ~ 8월 30일 (월)

> 전 시 명 : '이루다 in Jeju' 청년작가 그룹 초대기획전

> 초대작가 : 김성진, 김연화, 김영진, 김효정, 박지우, 송재운, 지비지, 황정희

전시실B

> 전시일자 : 8월 3일 (화) ~ 8월 30일 (월)

> 전 시 명 : '행복드림 Happy Pig in Jeju' 한상운 작가 초대전

> 초대작가 : 한상운

기간. 2021. 08. 3(화) ~ 08. 30(월) 장소. 이룸갤러리

운영시간. 매일 10:00 ~ 22:00 (일요일 14:00 ~ 22:00)

홈페이지. www.irumgallery.com

문의. 070-7795-5000

찾아오시는 길 |

제주서중 오일장 교차로

이룸갤러리

마트로마트

순복음교회

신광사거리

이룸갤러리 AD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2층 PHONE. 070-7795-5000 E-MAIL. irumgallery@naver.com